

KERI Brief

ESG의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과 기업가치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slee@keri.org)

최 근 ESG는 기업, 금융,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 ESG는 더 이상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성 측면의 경영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바이든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환경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EU·한국 등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선언하였고,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2021년초 탄소세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ESG를 투자 지표로 활용하는 글로벌 투자금액이 2014년 21.4조 달러에서 2020년에는 2배 규모인 40.5조 달러로 증가하였다. 2020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투자 최우선 순위를 ESG로 발표하였으며, 국민연금도 2022년까지 전체 운용 자산의 절반을 ESG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투자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시장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먼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자산 2조 원 이상, 2030년 이후에는 전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SG 중 환경(E)과 사회(S)를 추진하기 위한 기업 활동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의해 달려있으므로, 지배구조(G)가 ESG를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글로벌 기업은 지배구조(G) 측면에서 경영진의 보상 및 다양성 측면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은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및 ESG 컨트롤타워 신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가 새로운 기업 경영방침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ESG가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관련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ESG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와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공존하고 있다. ESG 경영이 비용인지 투자인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도 ESG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업가치와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ESG 도입 비용과 수익성을 연동시켜 이를 수치화한 모델로 ESG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ESG는 자본시장에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장려되어야 하며, 규제 관점의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ESG 개념의 급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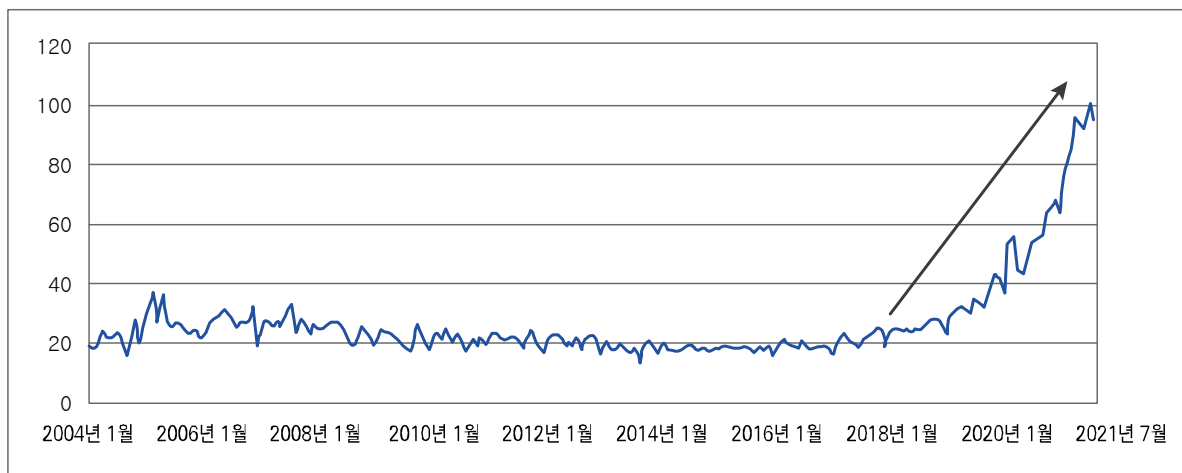
- 최근 ESG는 기업, 금융,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 ESG는 더 이상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음
 -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성 측면의 경영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ESG를 통한 지속가능경영은 모든 기업이 추구해야할 경영방침이 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ESG 성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구글 트렌드에서 200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ESG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최근 3년 사이에 ESG 관심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글로벌 ESG 트렌드와 기업의 부담

- 미국, EU 등이 2050년 탄소중립 제로를 선언하였고,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배출권 구매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 기업이 ESG를 추진하면서 친환경 사업 기회가 창출되고 MZ세대 소비자를 공략하며 투자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반면, 기업은 ESG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음
- 전통적인 입장에서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나,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폭넓게 강조되고 있음
- 기업이 ESG 경영에 주저하는 원인은 ESG가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견과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
 - 예컨대,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인 파타고니아는 친환경 의류라는 이미지로 MZ세대에게 큰 반응을 얻어 2019년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매출은 약 430억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
 - 반면, ESG 전도사로 자처했던 프랑스의 다국적 식음료 생산업체 다농(Groupe Danone)의 엠마누엘 파버(Emmanuel Faber) 최고경영자(CEO)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위기와 주주들의 압력으로 2021년 3월 사임하게 됨

〈그림 1〉 ESG 관심도 추이



자료: 구글 트렌드 분석 (2004년 1월~2021년 7월)

- ESG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에는 재무적인 성과도 포함되어 있고, 기업에 이익이 있어야 환경, 사회적, 지배구조 개선 등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

-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ESG는 기업에게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음
 - ESG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수익을 확대하고 자금조달비용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나, ESG 기업경영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기업이 부담하는 ESG 추진 비용이 상쇄될 만큼 기업의 수익성 증가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ESG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ESG 연구사례를 분석하여 ESG의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과 기업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II. ESG 개요

□ ESG의 개념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합성어로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자는 의미
 - ESG는 E, S, G의 세 요소를 투자와 경영의 핵심 지표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현하려는 경제 또는 경영이념
 - 좁은 의미로는 기업이 환경·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행위라 할 수 있음

□ ESG의 주요내용

- 환경(Environment)
 - 기후변화 대응, 환경오염 방지, 재생에너지 이용, 폐기물 관리 등이 주요 이슈
 - 기업의 환경경영 계획 및 실행, 환경성과 관리 및 보고, 친환경 혁신활동, 친환경 생산 공정, 공급망 관리 등이 포함됨
- 사회(Social)
 - 인적자원관리, 공정거래 및 상생, 고객관리,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이 주요 이슈

- 고용 및 근로여건, 직장내 기본권, 인력개발 및 지원, 노사관계, 공정거래, 부패방지, 상생, 소비자 보호, 제품에 대한 책임, 고객만족도, 지역사회 소통 및 기여 등이 포함
- 지배구조(Governance)
 - 주주권리 보장,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 감사기구, 공시 등이 주요 이슈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주주의 권리와 책임, 이사회 구성 및 선임, 사외이사, 위원회, 내외부 감사인, 이해관계자 경영감시 참여, 경영진의 보수, 공시의무 등이 포함
- 사회적 책임(CSR)과 비교
 - 미국의 경제학자 하워드 보웬(Howard Bowen)은 1950년대부터 기업이 이윤 추구 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953년에 CSR 개념을 정립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함
 -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환경적 관심을 분석하고 수용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룬다는 점에서 ESG와 유사

〈표 1〉 ESG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환경(E)	기후변화 대응, 환경오염 방지, 재생에너지 이용, 폐기물 관리 등
사회(S)	인적자원관리, 공정거래 및 상생, 고객관리,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
지배구조(G)	주주권리 보장,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감사기구, 공시 등

〈표 2〉 ESG와 CSR 비교

구분	ESG	CSR
의미, 목적	-기업 활동 전반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도입,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기업의 부가활동
실행방법	-기업 경영, 재무 활동에 ESG 요소를 연동	-봉사, 기부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가치 실현
단기적 효과	-주주, 잠재적 투자자, 투자 매체 등에 영향 -ESG 현황을 지수로 발표	-소비자, NGO, 임직원 등에 긍정적 이미지 부여 -충성도 및 기업 이미지 상승
장기적 효과	-기업의 재무 안정성으로 이어짐	-기업의 평판 향상에 도움 -매출 증대에도 기여

자료: 김재필(2021)¹⁾

- CSR은 기업 관점에서 자발적으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거버넌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었다면, ESG는 투자자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표가 계량화·정량화됨

▣ ESG의 평가

- ESG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먼저 도입된 개념이며, 과거에는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투자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투자결정 과정에 있어서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 요소까지 고려하게 되므로 ESG 평가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ESG 등급을 평가하는 평가기관은 125개 이상하며, 글로벌 ESG 표준, 프레임워크 데이터 공급업체까지 포함하면 ESG 관련기관은 600개 이상
 - 글로벌 ESG 평가기관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 레피니티브(Refinitiv), 로베코샘(RobecoSAM), 블룸버그(Bloomberg) 등이 있으며, 국내 ESG 평가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이 있음

▣ 국내 ESG 평가기관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연구,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900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등급을 부여하며, 투자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전년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평가분야는 환경(E)에서는 환경경영, 환경 성과, 이해관계자 대응이고, 사회(S)에서는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이며, 지배구조(G)에서는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감사기구, 공시, 최고경영자 보수,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공시 등임
 - ESG 등급은 S에서 D까지 총 7등급으로 구성되며, 2020년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ESG 준비 상황은 우수하지만 평가대상 기업의 68%가 B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1) 김재필, ESG 혁명이 온다, 『한스미디어』, 2021.

〈표 3〉 국내외 ESG 평가기관들의 평가방법

구분	기관명	지수	시작	평가대상	등급	평가방법
국내	한국기업 지배구조원	ESG평가	2011	900	S-D	기업공시, 기관자료, 미디어 자료 활용
	서스틴베스트	ESG Value	2006	1,000	AA-E	ESG 각 영역에 대해 평가 상반기, 하반기 평가 진행
	대신경제연구소	-	2017	-	-	수기조사 원칙, 기초조사 및 정량적 문항 평가 진행
국외	Thomson Reuters	ESG Scores	2009	6,000	0~100% A+-D	ESG Score ESG Controversy Score 2주마다 업데이트
	Dow Jones	DJSI	1999	5,900	0~100 산업내 비교	공동 평가항목 및 산업별 항목으로 구분 산업별 설문조사 시행
	Morgan Stanley	MSCI ESG Ratings	2010	6,000	AAA-CCC	ESG 37개 이슈 평가 정부 데이터베이스, 기업 공개자료, 매크로 데이터, NGO 데이터베이스 자료 활용 매주 업데이트/심층분석 연1회
	Bloomberg	ESG Data	2009	1,000	0~100	120개 지표 정보 누락에 대해서 감점
	RepRist	ESG Ratings	1998	84,000	AAA-D	8만 미디어 및 이해관계자 데이터 소스 모니터링 28개 ESG 이슈, 45개 관련 주제 매일 업데이트
	Sustainalytics	ESG Ratings	2008	6,500	0~100 산업내 비교	70개 지표 3개 분야: 준비상황, 공시, 실적

자료: 메리츠증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신한금융투자 재인용

〈표 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기준
환경	환경경영계획	최고경영자의 실천 의지, 환경경영 전략과 방침, 환경 목표 및 계획수립, 환경친화적 조직문화, 환경친화적 조직체계
	환경경영실행	환경친화적 생산, 기후변화 대응, 환경친화적 공급망 관리, 환경위험관리
	환경성과 관리 및 보고	환경성과 관리, 환경회계, 환경감사, 환경정보 보고
	이해관계자 대응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환경보호 활동
사회	근로자	고용 및 근로조건, 노사관계, 직장 내 안전 및 보건, 인력개발 및 지원, 직장 내 기본권
	협력사 및 경쟁사	공정거래, 부패 방지, 사회적 책임 촉진
	소비자	소비자와 공정거래, 소비자 안전 및 보건,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소비자와의 소통
	지역사회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발전, 지역사회와의 소통
지배구조	주주	주주의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의 책임
	이사회	이사의 구성 및 이사 선임, 사외이사,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의 의무, 이사의 책임, 평가 및 보상
	감사기구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참여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공시, 기업경영권 시장, 기관투자자

자료: 이정기·이재혁(2020)²⁾

〈표 5〉 서스틴베스트 평가내용

구분	평가내용
환경(E)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지 평가
사회(S)	근로자, 소비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
지배구조(G)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는지,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과 외부통제 수준이 높은지, 기업성적을 이해관계자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는지 평가

자료: 서스틴베스트

○ 서스틴베스트의 평가방식은 영역별 평가점수에서 과거 위반사항(Controversy)을 감점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설계

- 감점처리 되는 위반사항은 환경오염 적발, 회계위반, 입찰담합, 산업안전, 소송발생 등이 있음
- 산업섹터별로 ESG 영역별 점수 비중을 달리하여 적용, 환경은 5~25%, 사회는 35~40%, 지배구조는 40~55%, 일반적으로 지배구조 비중이 제일 크며,

금융기관의 경우 환경은 5%, 사회 40%, 지배구조 55%

2) 이정기·이재혁, “지속가능경영” 연구의 현황 및 발전 방향: ESG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Journal of Strategic Management, 2020, 23(2), pp.65-92.

〈표 6〉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지표

구분(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기준
환경 (5~25)	친환경 혁신활동	- 친환경 제품 개발 노력 및 성과 - 제품의 환경성 개선 성과
	생산 공정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공정관리
	공급망 관리	-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서 환경성 고려
	Controversy (차감항목)	- 환경오염 은폐 위반 사실 등
사회 (35~40)	인적자원관리	- 업무환경 등의 근로조건, 고용평등 - 노사관계 관리, 근로자 보건 및 산업안전
	공급망관리	-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 하도급 업체에 대한 성장 지원 등 상생 협력
	고객관리	- 고객정보 보호 및 소비자 만족 경영 - 품질관리(협력업체 포함)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 지역사회 신뢰관계 구축 노력 등
	Controversy (차감항목)	- 인권침해, 입찰담합 사실, 산업안전사고, 소비자 안전사고 등(금융회사: 불안전판매 사실)
지배 구조 (40~55)	주주의 권리	- 주주 친화적 투표제도, 주주총회 소집공고 적절 배당,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환원
	이사회	- 이사 선임방식의 투명성 - 이사회 실질적 기능 수행 및 독립성 여부 - 감사위원회 독립성 여부
	관계사 위험	- 관계사에 대한 우발채무 및 매출매입 거래 과다
	정보의 투명성	- 공정공시, 공시위반, 회계 투명성
	Controversy (차감항목)	- 횡령배임, 분식회계 사실, 부당지원 행위 등

자료: 서스틴베스트

III. ESG 발전과정 및 국내외 ESG 추진 현황

□ ESG의 발전과정

○ ESG는 1987년 브룬틀란 보고서에서 언급된 지속가능발전에서 시작되어 2003년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에서 최초로 ESG가 사용되었으며, 2005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서 공식용어로 사용됨³⁾

* UNEP FI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주요 금융기관들이 결성한 국제파트너십

** UNGC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2000년 출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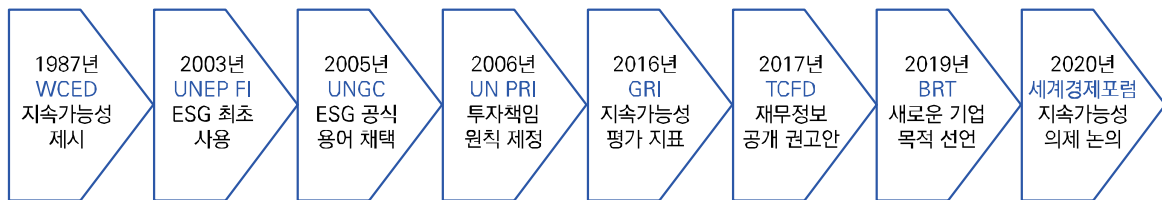
- 2006년 두 기관이 공동으로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를 제정하였으며, 서명기관이 2021년 1월 기준 3,615곳이고,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11개사가 가입됨
- 비영리단체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기업이나 기관이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GRI 표준을 2016년 정립함. GRI 표준은 경제, 환경, 사회 부문으로 구분되어 기업이나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됨

- 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TF (TCFD)에서 재무정보공개 권고안을 발표함. TCFD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측면에서 재무정보공개 권고안 제시
- 2019년 BRT(Business Roundtable) 선언은 애플, 아마존, 월마트, 블랙록 등 미국에서 영향력이 큰 CEO가 참여하는 연례회의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은 기업의 전통적인 목적인 주주이익 극대화 원칙을 폐지하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을 선언
- 2021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가 논의되었으며, 9월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이라는 제목으로 지속가능한 가치 측정 가이드라인 백서가 발간됨

3) 매일경제 ESG팀, 이것이 ESG다, 『매일경제신문사』, 2021.

〈그림 2〉 ESG 발전과정



□ 국내외 ESG 추진현황

○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 추진

- 미국 바이든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환경 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다른 국가와 기업에게 영향을 미침

* 미국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유럽의 그린 딜(Green Deal), 한국의 그린 뉴딜 추진

- 미국·EU·한국 등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선언하였고, EU는 2023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으며,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도 옹혜인 의원이 2021년 3월 탄소세 법안을 발의함

* 한국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함

**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함

□ ESG 투자자산 증가

- ESG를 투자 지표로 활용하는 글로벌 투자금액이 2016년 21.4조 달러에서 2020년에는 2배 규모인 40.5조 달러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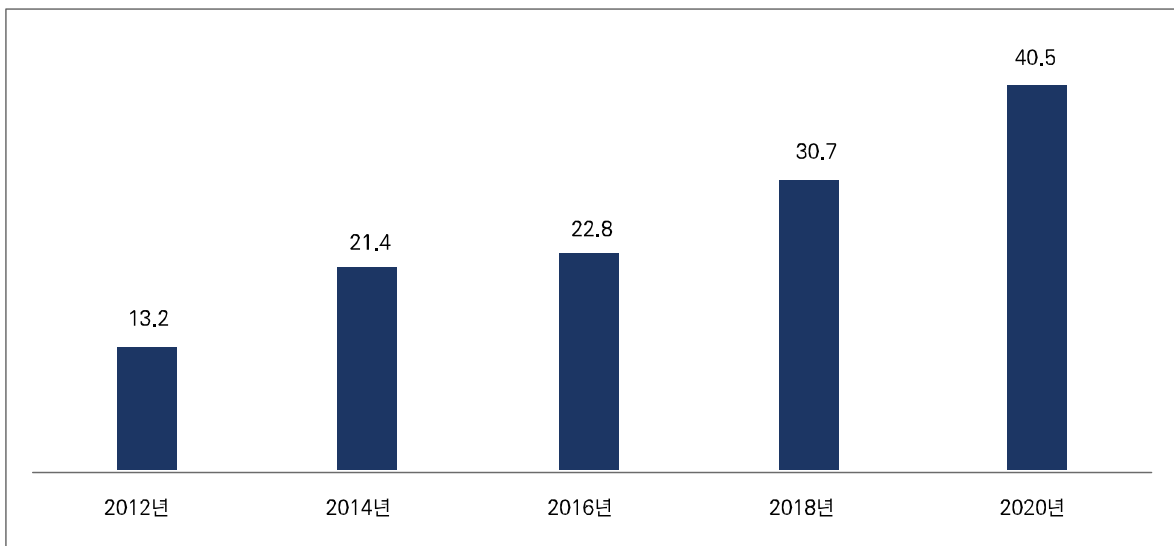
*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는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리뷰 2020' 보고서를 2년마다 발간하고 있으며, 전세계 ESG 투자액은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일본 등 세계 5개 지역의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값임

- ESG를 지표로 삼은 ETF는 2015년 60개에서 2020년에는 400개 이상 증가하였고, 2020년 전세계 ESG 관련 펀드 총자산은 약 1조 3천억 달러인 것으로 조사됨

- 2020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투자 최우선 순위를 ESG로 발표하였으며, 국민연금도 2022년까지 전체 운용 자산의 절반을 ESG에 투자한다고 밝힘

〈그림 3〉 글로벌 ESG 관련 투자자산

(단위: 조 달러)



자료: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ESG의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과 기업가치

○ ESG 위원회 설치 가속화

- ESG 평가와 투자자 요구, ESG 공시 강화, 바이든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ESG 위원회 설치 속도를 높이고 있음
- 2020년 포춘(Fortune) 100대 기업의 63개사가 ESG 위원회 도입하였나, 국내 코스피 상장사 중 ESG 위원회나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12곳에 불과
- 최근 국내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ESG 위원회를 신설하였거나 신설 예정으로 ESG 위원회 설치가 가속화되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G) 공시 의무화

- OECD·G20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15년), 일본의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14년)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도입('15년) 등 국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주요국들은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 「2017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에 따르면, 조사대상 45개국중 미국, 중국 등 37개국(84%)이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

〈표 7〉 국내 10대 그룹 ESG 위원회 현황

회사	구성	위원장	신설일
삼성물산	사외이사 5명	정병석 전 노동부 장관	2021년 3월
현대자동차	사외이사 6명, 대표이사 1명	최은수 대륙이주 고문변호사	2021년 3월
SK	사외이사 5명, 대표이사 1명	장용석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2021년 3월
LG	사외이사 4명, 대표이사 1명	미정	2021년 5월
롯데지주	사외이사, 사내이사	미정	2021년 하반기
포스코	사외이사 3명, 대표이사 1명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	2021년 3월
한화	사외이사 2명, 대표이사 1명	이석재 서울대 인문학부 교수	2021년 3월
GS	사외이사 2명, 대표이사 1명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2021년 3월
현대중공업	사외이사 3명, 대표이사 1명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2021년 4월
신세계	사외이사 3명	위철환 변호사	2021년 4월

자료: 언론보도 종합

〈표 8〉 주요국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현황

국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원칙	접근방식	공시요구	규제근거	감독기관
영국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CoE	○	상장규정	감독당국
호주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CoE	○	상장규정	거래소
홍콩	Corporate Governance Code	CoE	○	상장규정	거래소
일본	Corporate Governance Code	CoE	○	상장규정	거래소
미국	NASDAQ Listing Rules NYSE Listed Company Manual	준수 의무	○	관련 법규/ 상장규정	감독당국/ 거래소

주: CoE(Comply or Explain): 준수 의무를 자율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원칙준수, 미준수시 사유 설명)

자료: 2017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동수준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기업지배구조 관련 투자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시장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은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함.⁴⁾ 2021년 1월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발표⁵⁾

** 현재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공시하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먼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자산 2조 원 이상, 2030년 이후에는 전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확대예정

- 4) 금융위원회, “기업지배구조 공시 단계적으로 의무화”, 보도자료(2018.3.21)
- 5) 금융위원회,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보도자료 (2021.1.14)

<표 9>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의무화 일정

구분	적용 대상	시행일 또는 예정일
지배구조(G)만 공시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기업	2018년부터 시행
ESG 공시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기업	2025년 예정
ESG 공시	모든 코스피 기업	2030년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IV.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관련 논의 및 국내외 지배구조 개선 사례분석

□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관련 논의

- 선행연구는 ESG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와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연구로 나뉘어 있으며, 먼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연구로는 Fama(1980), 손평식(2010), 류예린 외(2018), 오상희 외(2019) 등이 있음
 - Fama(1980) 및 Fama & Jensen(1983)은 사외이사 비율과 기업가치를 연구하였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전문지식과 감시기능 제공하며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가치 높은 것으로 나타남⁶⁾⁷⁾
 - 손평식(2010)은 IMF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관계를 분석함.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배구조지수와 기업가치와의 관계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등 하위 지배구조지수도 기업가치와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임⁸⁾
 - 류예린 외(2018)는 기업지배구조와 동반성장의 관계를 분석함. 연구결과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대주주의 영향력이 낮거나, 외국인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동반성장 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⁹⁾
 - 오상희 외(2019)는 ESG 평가요소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 연구결과 기업성과인 자산수익률과 추가수익률에 지배구조, ESG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¹⁰⁾
- 반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없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Yermack(1996), 김병우(2010), 공경태 외(2013),

Friede 외(2015), Faller 외(2018), 김윤경(2020), 박경서(2021) 등이 있음

- Yermack(1996)은 이사회 규모와 기업의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이사회 규모가 크면 기업가치가 높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이사회 규모가 크다고 항상 기업가치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오히려 이사회 규모가 작을수록 기업의 성과는 높고, 대리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¹¹⁾
- 김병우 외(2010)는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패널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경영자지분율과 역U자형 관계인 것을 확인하였고, 경영자지분율이 31.7% 이상의 구간에서는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순히 지분율이 높아지거나 지배구조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기업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¹²⁾
- 공경태 외(2013)는 기업지배구조와 대규모기업집단의 대리인 비용에 대해 실증분석하였으며,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의 우수등급을 받은 대규모기업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에 대리인 비용의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¹³⁾

6) Fama, E., "Agency problem and the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 288-307, 1980.
 7) Fama, E. and M. C. Jensen,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 310-325, 1983.
 8) 손평식,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와의 관계분석 - 기업지배구조지수를 이용 -, 『산업경제연구』, 23(3), 1443-1465, 2010.
 9) 류예린, 지상현, "기업지배구조와 동반성장 간의 관련성 연구", 『산업경제연구』, 2018.
 10) 오상희, 이승태, "ESG 평가요소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산회계연구』, 2019.
 11) Yermack, D., "Higher Market Value of Companies with a Small Board of Director",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0, 185-211, 1996.
 12) 김병우, 김동욱, "패널자료분석법에 의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간의 영향관계 분석", 『금융공학연구』, 6(2), 223-247, 2010.
 13) 공경태, 최중서, "기업지배구조, 대규모기업집단과 대리인 비용", 『국제회계연구』, 49, 251-272, 2013.

- Friede 외(2015)는 1970년부터 2014년까지 다양한 자산 및 지역의 ESG 성과 분석을 위해 2,000건을 평가한 메타분석 결과 ESG와 기업 재무성과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포착된 경우는 48%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52%(음(-)의 상관관계(11%), 혼합(18%), 중립적(23%))로 나타남¹⁴⁾

14) Friede, G., Busch, T., and Bassen, A. "ESG and financial performance: aggregated evidence from more than 2000 empirical studies", Journal of Sustainable Finance & Investment, 5(4), 210-233, 2015.50(1), 15-40, 2018.

〈표 9〉 주요 선행연구 결과

저자	연구주제	내용 및 결과
Fama(1980) Fama & Jensen(1983)	- 사외이사 비율과 기업가치	- 사외이사는 전문지식과 감시기능 제공 -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가치 높음
Yermeck (1996)	- 이사회 규모와 기업의 성과	- 이사회 규모의 규모가 크다고 기업가치가 높지는 않음 - 이사회 규모가 작을수록 기업의 성과는 높고,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킴
김병우 외 (2010)	-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 경영자지분율과 역U자형 관계 확인 - 단순히 지분율이 높아지거나, 지배구조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기업가치가 증가하지 않음
손평식 (2010)	- 지배구조지수와 기업가치 관계	- 전체 지배구조지수와 기업가치와의 관계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 -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등 하위 지배구조지수도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
공경태 외 (2013)	- 기업지배구조, 대규모기업 집단과 대리인 비용	- 대리인 비용에 대해 실증분석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우수등급을 받은 대규모기업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에 대리인 비용의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류예린 외 (2018)	- 기업지배구조와 동반성장	-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간의 관련성 검증 -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대주주의 영향력이 낮거나, 외국인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동반성장 활동에 적극적
Friede 외 (2015)	- ESG 성과를 메타분석	- 1970년~2014년까지 약 2천건의 ESG 성과를 메타분석 - 양(+의) 관계로 조사된 경우는 48%, 그렇지 않은 경우 52%로 조사됨
Faller 외 (2018)	- 소유구조와 CSR의 관계	- CRS와 성과 간에 관계를 연구한 18편의 논문 중 음(-)의 관계로 분석된 11편, 양(+의) 관계로 분석된 5편, 유의미한 결과가 없는 2편으로 보고됨
오상희 외 (2019)	- ESG 평가요소와 기업가치	- ESG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 기업성과에 지배구조, ESG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김윤경 (2020)	- 비재무적 정보(ESG) 공시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ESG 공시와 재무성과 간에 실증분석 - ESG 공시가 기업성과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음
박경서 (2021)	- ESG경영과 투자의 지속가능성	- ESG경영과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논의 - ESG투자가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장기적 지속가능할지 확인된 바 없음

- Faller 외(2018)은 소유구조와 CSR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은 분석하였는데, CSR 성과 간에 관계를 연구한 논문 중 음의 관계로 분석된 논문이 11편으로 양의 관계로 분석된 5편의 논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¹⁵⁾
- 김윤경(2020)은 비재무적 정보(ESG) 공시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는데, ESG 공시가 기업성과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¹⁶⁾
- 박경서(2021)는 ESG경영과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하였으며, ESG투자가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장기적 지속가능할지 확인된 바 없음¹⁷⁾

▣ **국내외 ESG의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 사례분석**

- 애플(Apple)은 임원 성과급에 ESG 성과 반영
 - 2021년부터는 이사회 보상위원회에서 환경, 다양성, 직원 간 통합 등 경영진의 ESG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현금 보너스 지급액 책정시 반영
 - 애플이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고용의 다양성, 환경 및 사회적 이슈에 부응하는지 여부를 따져 임원들에게 최대 10%의 보너스를 받도록 제도화할 계획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조직의 다양성을 높이는 다수의 투자·프로그램 추진
 - 인종 차별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1억 5,000만 달러(1,805억 원)를 투자하고, 흑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임원 비율을 두 배로 늘릴 예정
 - 하위 직급 흑인 직원의 승진을 위해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도 제공하며, 부사장과 총괄 임원 등이 조직의 다양성을 목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승진과 상여금 높이는 등의 제도 마련
- 넷플릭스(Netflix)는 다원주의 인력정책 추진 및 임원진에 대한 공개 보상제도 도입

- 미국의 넷플릭스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다원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 유색인종, 소수인종, 성소수자 등으로 구성된 제작자 및 사내 인력 보유율을 개선하고 있음
 - * 여성 인재 훈련 및 일자리 제공 등 향후 5년 동안 연간 2,000만 달러를 투자 계획인 'Netflix fund for creative equity'를 2021년 3월 발표함
- 임원진에 대한 공개 보상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금 격차에 대한 공개 토론을 장려한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월마트(Walmart)는 획일적인 ESG 위원회가 아닌 유통업체 특성을 반영한 기술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 선임 및 지배구조 위원회 등 ESG 관련 다양한 위원회 운영
 - 기술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는 회사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회사의 비즈니스 및 전략 방향 결정
 - 선임 및 지배구조위원회는 ESG 전반을 관리하는 위원회로 기업 문화의 다양성, 임직원 보수 및 혜택 등 기업 문화 및 인적 자본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업의 공공 정책 참여 전략, 사회 및 지역사회, 환경 전략 등 전반적인 지속가능 핵심 사항을 보고받음
- 삼성전자는 이사회에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15) Faller, C. M. and zu Knyphausen-Aufseß, D., "Does equity ownership matter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literature review of theories and recent empirical finding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0(1), 15-40, 2018.

16) 김윤경, "기업 비재무적 정보(ESG) 공시가 재무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KERI, 2020.

17) 박경서, "ESG경영과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논의", 『기업지배구조 리뷰』, 2021.

- 삼성전자는 이사회 11명 중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2018년부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 운영하는 등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음

* 이사회 산하 6개 위원회(경영·간사·보상·거버넌스·사외이사후보추천·내부거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에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함. 현재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됨

-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7개 주요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통제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0년 2월 5일 공식 출범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외부위원과 1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는 삼성전자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검토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 등 회사에 제시할 수 있음

○ 현대자동차는 ESG 경영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구축

- 현대자동차는 2021년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개편했는데,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계열사 내부거래 및 소통강화를 위해 구성됐던 투명경영위원회가 ESG 분야로 범위를 넓혀 ESG 경영과 관련된 주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게 됨

- 현대자동차는 금융, 경영, 법률, 자동차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에게 경영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모니터링과 견제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 전문성, 다양성, 투명함을 기준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과 사외이사 6명 등 회의 운영과 의사결정 효율성을 고려해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SK는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혁신 전략 실시 및 ESG 위원회 신설

- 이사회에 대표이사 평가, 중장기 전략 수립 등 경영 핵심분야에 대한 심의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혁신 전략인 '거버넌스 스토리' 실시

- 이사회 산하에 인사위원회, ESG 위원회를 신설해 대표이사/사외이사 후보추천/대표이사 평가, 사내이사 보수 심의, 중장기 성장전략 검토 등 핵심 경영활동 수행

- 환경(E), 사회(S) 분야의 실천 노력에 더해 주주, 투자자,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수준으로 지배구조(G)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ESG 경영 추진

○ NAVER는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신설하고 CFO 산하에 ESG 전담조직을 신설함

- ESG 경영 강화를 위해 2020년 10월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최고재무책임자(CFO) 산하에 ESG 전담조직을 신설함

- 아울러 'NAVER 부정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회사의 부정 위험을 평가 및 점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함

〈표 10〉 국내외 ESG 지배구조 개선 사례

구분	기업명	주요 내용
국외	Apple	임원의 성과급에 ESG 성과 반영
	Microsoft	조직의 다양성을 높이는 다수의 투자·프로그램 추진
	Netflix	다원주의 인력정책 및 임원진 보상 공개제도 도입
	Walmart	다양한 ESG 관련 위원회 운영
국내	삼성	이사회 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현대자동차	ESG 경영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설치
	SK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혁신 전략 실시, ESG 위원회 신설
	NAVER	ESG 위원회 신설 및 ESG 전담조직 신설

자료: 각 회사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 종합

V. 요약 및 시사점

□ ESG의 급부상과 지배구조(Governance)의 중요성

- 최근 ESG는 기업, 금융,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 ESG는 더 이상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미국 바이든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환경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ESG를 투자 지표로 활용하는 글로벌 투자금액이 2016년 21.4조에서 2020년에는 2배 규모인 40.5조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투자 최우선 순위를 ESG라고 밝힘
- ESG 중의 지배구조(G)는 환경(E), 사회(S)에 비해 친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전문가들은 지배구조(G)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Russell社의 '2020 Annual ESG Manager Survey'에서 투자자의 82%가 투자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배구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답했으며, 환경 13%, 사회 5% 순으로 응답함
 - 투자자들은 자본이 몰리고 있는 환경(E)에 관심이 있고, 시민단체나 언론은 사회적 이슈나 기업 이미지에 민감한 사회(S)에 관심이 높지만, 결국 환경(E)과 사회(S)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므로 지배구조(G)가 ESG를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됨

□ 글로벌 기업은 지배구조(G) 측면에서 경영진의 보상 및 다양성 측면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은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및 ESG 컨트롤타워 신설에 중점

- 국내외 지배구조(G) 개선 사례에서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음
 - 글로벌 기업들이 ESG 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보상을 제공하며, 흑인, 여성 등의 인력 보유비율을 높이고 이러한 소수자들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성 측면을 강화하고 있으나,
 - 국내기업들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를 분리하는 등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ESG 경영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국내 지배구조 개선성과는 반기업 정서가 강한 국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ESG 도입이 비용인지 투자인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ESG를 추진에 있어서 기업가치와 수익성을 고려해야 함
 - 기업은 ESG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며, 이것을 비용으로 볼 것인지 투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음
 -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ESG가 재무적 성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ESG 도입에 주저하게 됨
 -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ESG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공존하고 있음
 - ESG가 새로운 기업 경영방침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ESG가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음

-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ESG 경영으로 단순히 대응하면, 수익성을 낮추고 재무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ESG의 외부효과는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지만, ESG를 개별 기업의 수익성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기업은 수익성과 ESG를 연동시켜 이를 수치화한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수익률 지표인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수익률(ROE) 등과 ESG에 투입될 비용을 고려하여, 비용보다 더 높은 현재가치화된 미래수익이 기대될 때 ESG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
 - * 예컨대, ROE와 ESG를 연동시킨 ROESG모델은 일본 제약회사 예자이가 개발한 것으로, ESG에 투입된 비용을 미래 투자로 간주하고 이를 이익에 반영시켜 ESG스코어를 산출하는 모형이 있음
 - 기업은 ESG가 자선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업가치 상승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ESG 경영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은 시장 경쟁력 확보와 질적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ESG 도입에 규제 관점으로 접근은 지양해야 함

-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 국내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ESG를 경영에 도입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환경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배구조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기업환경에 대비하고 있음
- 기업의 경영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위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여 재무상태를 먼저 개선한 후 ESG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ESG는 자본시장에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장려되어야 하며, ESG 추진이 정부의 압력이나 규제 관점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임
- 정부가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절감할 것을 강제한다거나,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음
- *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SG를 법률이나 조세 등과 같은 규제 관점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있음
- 최근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국내기업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21년 08월 20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